

야부하라는 나카센도의 역참으로 발달했다.

주오도(十王堂, 약사당)가 있는 이곳은 나가와를 거쳐 노무기토게(野麦峠), 히다 다카야마(飛騨高山)로 이어지는 히다 가도(나가와도)의 갈림길이었다.

왼쪽의 좁은 길이 옛 나가와도이며, 오기소 지역을 지나면 미노(美濃)와 시나노(信濃)의 국경이었던 점에서 사카이토게(境峠)라 불린 고개가 있다.

당시 이 고개는 험한 길이었고 기소 쪽은 습지여서 널다리를 놓아 건너야 했다. 한편, 나가와 쪽도 암석이 많은 험로였기 때문에 말은 이용하기 어려웠다.

대신에 비슈 오카후네(尾州陸船)라고 불리던 나가와의 소가, 히다 방어와 같은 어패류나 소금 등의 짐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었다.

메이지 44년(1911년) 주오사이선(中央西線)이 개통되면서 오카야의 제지공장에서 일하는 히다 여성들이 이 길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다.